‘공천 티켓’ 사실상 공심위에 달렸다

계량화 어려운 서류심사·면접 등 70% 차지

주관적 판단 개입여지…예비후보들 노심초사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 티켓의 향배는 공심위원들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컷-오프(후보 압축)가 정확하게 계량화된 지수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는 공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심위의 컷-오프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반발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민주통합당은 여론조사 30%, 서류심사(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의정 및 사회활동) 50%, 면접 20% 등 컷-오프 배점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배점의 70%를 차지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은 아무리 계량화를 한다고 해도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해도 서류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컷-오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류심사의 50%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는 정체성 심사는 컷-오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과거 민주당의 공천에 불복,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는 일부 예비 주자들은 행여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기에 중도적 정치 성향을 보이며 때때로 당론과 배치되는 활동을 보였던 현역 국회의원들도 정체성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도덕성과 기여도 기준도 공심위원들의 관점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덕성에서의 심사 배제 기준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예비 주자가 대상이지만 공심위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배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부여됐다.

특히,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면접 심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가장 많이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면접은 서류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선거구별 후보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실시되며 공심위의 필요에 따라 개별 면접도 실시된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외부 공심위원들이 진보 및 개혁 성향의 예비 후보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당내의 공심위원들은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 예비 후보들에게 긍정적인 점수를 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심위 심사에서 당내 인사들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당내 공심위원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선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반면, 외부 공심위원들은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견고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공천 기준이 100%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공천 심사 방향이 개혁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인사 보다는 외부 공심위원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면접보는 문재인

4·11 총선에서 부산사상에 공천 신청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지역구 공천 심사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4·11 총선 후보자 심사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서류심사 (50점)	정체성	20	△ 경제 민주화 △ 보편적복지 △ 평화통일 등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에 동의하고 추구하는 자
	기여도	10	
	의정·사회활동	10	
	도덕성	10	
후보적합도·경쟁력		30	(공천 적합도 평가)
면접		20	
합계		100	

광주·전남 3명포함 48명 압축

내달 9~11일 투표… 4명 선발

청년비례 심층 면접

민주통합당 청년대표국회의원 후보군이 48명으로 압축됐다. 이중 광주·전남지역 출신 합격자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대표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9일 116명의 심층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 11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통해 4분위별(25~29세, 30~35세 남·녀)로 10명씩 총 40명의 합격자를 선정했다. 또 지난 12일 심층면접을 8명의 추가합격자를 선발, 총 48명이 2단계 경선에 참가하게 됐다.

이중 광주·전남지역 합격자는 조영진(여·26)·김광진(31)·박은철(34)씨 등 모두 3명. 이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해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휴학 중인 조씨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학생정책자문단 부단장 등을 지내면서 직·간접적으로 정당활동을 해왔다.

조씨는 “예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며 “(최종 선정된다면) 젊은이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함은 물론 청년들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통합당 전남도당 대변인과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고향인 순천에서 청년문제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에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26일까지 청년정치캠프를 진행해 최종 경선 참가자 16명을 추릴 계획이다. 또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청년선거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9~11일 투표를 실시,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선발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역의원 다면평가는

의원들끼리 4년간 의정 활동 서로 점수 매겨

민주통합당 4·11 총선 공천심사에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서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다면평가제가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안’을 마련,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다면평가는 현역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서로 평가한 뒤 이를 A·B·C·D 등 네 등급으로 나눠 반영한다.

일반 공천신청자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현역 의원 평가는 여론조사 40%·의정활동 평가 30%·다면평가 30%의 비율로 반영된다.

다만, 이를 ‘컷-오프’(후보 압축) 대상 심사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고 점수화해 의정·사회활동 점수(10점)에 포함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면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성 공천 어떻게

15% 의무 할당, 내부경선 10~20% 가산점도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지역구 공천에 여성 15%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규로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3일 4·11 총선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15% 의무공천’을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성 후보에게는 컷오프 과정에서 1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심사 후 진행되는 경선에서도 현역의원을 제외한 전직의원·비례의원·지역위원장은 10%, 신인 여성정치인은 2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다만, 가산점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해당 항목 중 높은 점수만 인정된다. 또 한 지역구에서 복수 여성 후보가 나올 땐 공심위에서 단수 후보로 컷오프 할 방침이다.

룰 대로라면 여성은 컷오프에서 15%의 혜택을 받고 내부 경선에서도 10~20%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공천 후보자 총수의 15%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자질이 부족한 여성 후보자를 공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으며, 한명숙 대표는 “여성 후보도 일반 다른 후보자들처럼 엄격한 잣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 컷-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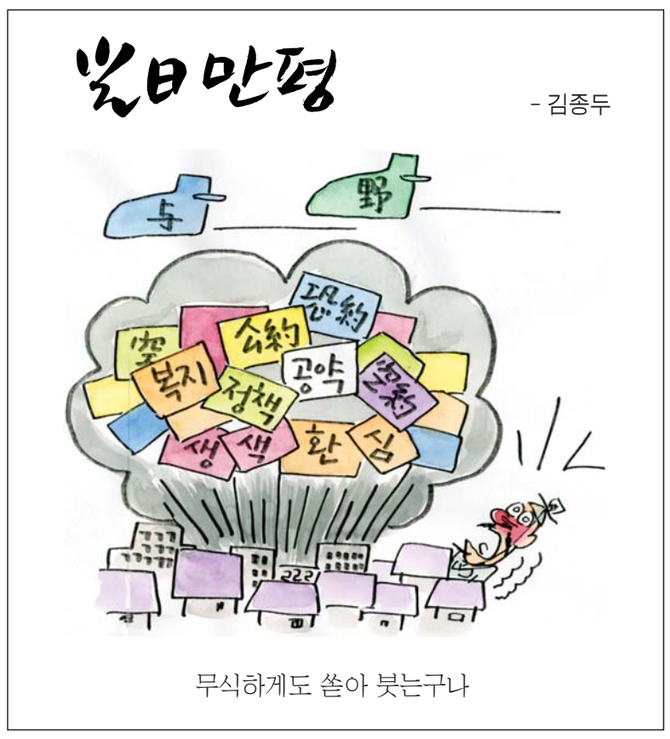
호남 가장 늦게 실시

컷-오프 기준 및 방법을 확정한 민주통합당은 13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한 부산 지역 단수 등록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은 부산 및 영남지역에 이어 충청권, 강원·제주, 서울 및 수도권, 호남지역 순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컷-오프는 이달 말이나 3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남지역 컷-오프가 가장 늦게 이뤄지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공천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식하게도 쏟아 붓는구나

www.hanilexpress.co.kr
HANIL EXPRESS
제주↔완도 한일카훼리 취항
33주년 기념 이벤트
렛츠고 3.3.3!

Event 1. 3.3.3. Early bird 할인
3월 탑승 블루나래호, 33% 할인!
▸ 기 간 : 02년 1월 ~ 02년 29일
▸ 대 상 : 3월 탑승 블루나래호 예매 고객
▸ 내 용 :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터미널 이용료 별도)
Event 2. 다자녀 가정을 응원합니다!
3자녀 이상 가족고객, 33% 할인!
▸ 기 간 : 2012년 중
▸ 대 상 : 3자녀 이상 동반 가족 고객
▸ 내 용 : 블루나래호 일반석 33% 할인
(하계/추석 특송기간 제외, 터미널 이용료 별도)
이벤트 상세 내용은 한일고속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전/화 1688-2100